

좋은 선녀 **관주일보와 함께**



소설가 한승원의 에세이 신물

그리움이 만나는 곳, 내 고향



INSIDE

- 13 한복 댁시·화장반
- 14 설 상차림 어땠게
- 15 쥐띠해 띠풀이
- 17 맛 따라 멋 찾아
- 18 설 극장가
- 19~21 설 TV 프로그램

고향은 나에게 있어서 희망과 용기를 재충전하는 시공(時空)이다. 어린 시절 밖에 나가 동무와 함께 놀다가 그 동무에게 얻어맞고 울면서 어머니에게 돌아와 위인을 받은 다음 “다시 한 번 해봐라 너는 그 아이한테 이길 수 있어”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서 다시 나가 그 동무와 싸우면 이길 수 있었다. 한때 그 동무에게 얻어맞고 울면서 돌아와도 위인받을 어머니의 꿈이 없는 아이는 고이다. 그 고이는 “너는 그 아이한테 이길 수 있어”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 까닭으로 풀이 죽어 노숙자처럼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채 맴도는 것이다. 어머니와 고향은 동의어이다. ▶ 12면으로 계속

담장 너머 “할아버지~” 소리가 들리더니 훌쩍 더 커버린 손자 손녀가 미음을 달려온다. 한껏 팔을 벌려 맞는다. 할아버지, 할머니의 얼굴엔 모든 시름이 사라진다. 가족사랑의 에너지가 가득한 시간, 설날이다. /성문 창평면 삼천리 김경남씨(76) 가족=위례량기자 jwli@